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윤한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 7:11-17	다함께
특송 Special Song		강민선
말씀선포 Sermon	두 행렬의 만남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7월 7일	7월 14일
유영환	최빅토리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가을에다시)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이만한 믿음

본문 : 눅7:1-10

오늘 본문은 백부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종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언급되고 있는데 다른 점은 본문에서는 유대인 장로와 친구들을 보내어 요청을 하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에 들르신 예수님께 백부장이 직접 찾아와서 요청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요즘 군대로 본다면 중대장에 해당되는 직책으로 그 지역, 즉 가버나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 백부장은 당시 가버나움에서는 큰 권력을 가진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종을 위해서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고쳐주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들보와 티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열매와 나무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들보와 티의 문제는 차별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자기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차별하는 것이 못된 열매이며 따라서 자기 눈의 들보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좋은 나무에 속한 좋은 열매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7절)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은 자신을 감히 주께 나아갈 수도 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즉 자신은 낮추고 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백부장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백부장이 자신의 지위와 힘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차별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양과 도덕이 됩니다. 즉 백부장의 인격이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부인하며 낮추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것이 자기 눈의 들보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백부장은 자기 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에게 집중한 채 살아가는 유대인의 믿음을 믿음 아닌 것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원한 것은 말씀뿐이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낮게 하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말씀만 해 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권위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세계 안에서는 은혜로 인한 감사가 있을 뿐 차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